

財政支出과 經濟成長

- 1970年代 韓國財政을 中心으로 -

田 馨*

- | | |
|---------------------|----------------|
| I. 序 論 | IV. 經濟變動과 財政支出 |
| II. 1970年代 韓國財政의 特性 | V. 財政支出의 景氣彈力性 |
| III. 政府貯蓄과 政府投資 | VI. 結 論 |

I. 序 論

이 글의 目的은 1970年代 우리나라 財政의 役割을 評價함에 있어서 그 支出規模 및 構成內容의 變化에 重點을 두어 經濟成長에 대한 기여를 分析하는데 있다. 1970年代는 韓國經濟가 開發過程을 통하여 後進國 特有的 農業에 基礎를 둔 沈滯되었던 傳統의 社會로부터 高度의 成長實績을 이룩하여 工業化를 위한 積極的인 經濟成長을 圖謀할 수 있는 基盤을 구축한 1960年代에 이어 經濟規模가 더욱 擴充한 年代로 特徵지을 수 있는 期間이었다.

1962년부터 始作된 經濟開發 5個年計劃(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1962-1966,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1967-1972,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1973-1977,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 1978-1983)을 中心으로 政府의 積極的인 經濟成長政策은 그 成功的인 遂行過程을 통하여 經濟規模의 量的 膨脹과 함께 政治的, 社會的 樣相을 크게 變化시켰으며 이에 따라 財政의 役割 또 한 많은 變化를 가져 왔다. 財政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높으며 그 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國民經濟에 끼치는 影響 또한 매우 크다. 財政의 役割은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成長指向的이며 先進國에 있어서는 經濟安定 및 所得分配에 그 重點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國民經濟를 構成하고 있는 民間部門과 公共部門의 어느 部門이 보다 經濟成長을 主導하느냐에 대하여서는 明白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現代 混合經濟體制下에서 財政이 經濟成長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는 點은 다음 事實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個人貯蓄에 比하여 政府貯蓄의 增加率이 높다는 點, 둘째, 財政投融資를 통한 基幹産業의

* 本 研究所 研究員, 檀國大 商經大 助教授

育成, 擴充 및 社會間接資本의 蓄積, 셋째, 租稅政策을 通하여 貯蓄·投資活動을 誘導하고 있는 點이다. 이러한 點에 비추어 볼때 오늘날 財政의 重要性은 높이 評價된다. 1970年代 우리나라 財政은 이러한 經濟의 量的 膨脹에 力點을 둔 成長指向的 財政이었으며 經濟安定 및 分配面이나 經濟規模의 擴大過程에서 야기되는 景氣調整等의 質的 問題에는 그리 觀心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財政에 의한 成長政策은 經濟의 總供給能力을 增加시키는 政策이며 完全雇傭國民所得을 前提로 할때 消費보다는 投資에 資源을 보다 많이 投入하는 政策을 말한다.¹⁾

財政의 活動을 經濟成長問題에 結付시킬 때 이는 自然 支出規模 및 그 構成內容이 中心을 이루며 財政의 制度的 面이나 機構面의 問題는 副隨的인 意味밖에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이 글에 있어서는 經濟成長에 미친 財政支出을 國民所得計定과의 比較에 依存하여 그 作用과 效果에 대하여 考察하기로 한다.

本 序論에 이은 II에서는 1970年代 우리나라 財政의 特性을 國民所得計定에서 찾아 보았으며 III에서는 成長을 可能케 한 政府貯蓄과 政府投資, IV와 V에 있어서는 財政支出과 經濟變動 및 財政支出의 景氣彈力性에 대하여 살펴 보았으며 끝으로 VI에서는 이 研究에서 얻은 結果를 要約 收錄해 두었다.

II. 1970年代 韓國財政의 特性

1970年代는 우리나라가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變化를 크게 가져온 期間이다. 1967-1972年의 第2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이어 1973-1977年의 第3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마치고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執行中에 있는 期間으로 同期間 年 8%²⁾의 高度의 成長實績을 이룩함으로써 經濟構造를 크게 變化시켰다. 이러한 時期에 있어서의 財政支出 「패턴」의 特徵을 分析하기 위해서 財政支出規模 및 그 構成內容을 國民所得計定과의 比較에서 檢討하기로 한다.

政府의 活動目的은 歷史的 發展과 함께 그 樣相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支出規模의 膨脹과 함께 그 內容 또한 外延的으로나 內延的으로나 많은 變化를 가져오며 그 效果 역시 多樣하다.

1950年代 우리나라 財政은 6·25動亂後의 混沌되었던 經濟秩序로부터 復興, 戰爭遂行 및 防止를 위한 國防費의 負擔增大를 가져와 正常的인 經濟 循環 過程에 別다른 效果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後 持續的인 經濟 安定化의 努力은 1958年頃부터 그 效果를 보아 經濟成長을 위한 政策으로 變化시킬 수 있게끔 되었다.

1960, 70年代에 있어서 一般政府部門의 支出規模는 1970년에는 1960년에 比하여 約10倍強의 增大를 보여주고 있다. 一般經費, 國防費, 投融資로 나누어 部門別로 그 推移를 살펴 본

1) A. P. Lerner, Economics of Employment, McGraw-Hill, New York, 1951, p.137.

2)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82, pp.352-353.

다면 3) 一般經費와 國防費가 차지하는 比重은 1960年의 99%를 除外하더라도 1961年의 69%에서 1970년에는 66.2%로 同期間 60% 以上の 一定한 消費支出패턴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다. 이러한 消費的 支出中 國防費는 우리나라의 政治的 與件에 비추어 論外로 한다. 하더라도 一般經費支出은 1961年의 40%에서 1970년에는 44.2%로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政府 活動範圍의 擴大에 基因되겠으나 消費的 支出의 過多는 投資財源의 限界를 넘게 되는 것이다.

消費的 支出과는 달리 經濟成長과 直接的인 關係를 맺고 있는 財政投融資는 直接的인 投資와 間接的 投資로 區分된다. 直接的 投資는 道路, 항만, 教育投資와 같이 直接的으로 生産物을 創造시키지는 않으나 生産에 必要한 用役을 提供하는 社會的 資本으로써 社會的 物的 生産能力을 急速히 變化시키지는 않으나 社會生産性에 效果를 미치기 위하여 投資된다. 이에 反하여 間接的 投資는 政府部門에서 民間部門으로 資源을 移轉함으로써 民間産業의 保護育成을 圖謀하기 위하여 支出되는 投資를 가르킨다. 이러한 投融資를 國民經濟 全體에서 볼 때는 産業別 資源 配分의 問題인 바 여기에는 一定한 投資基準이 必要하며 그 基準에 따라 區分된다. 60年代에 이어 70年代에 있어서도 政府는 經濟開發 5 年計劃을 通하여 政府의 投融資는 에너지의 擴保, 農業生産力의 增大, 輸出의 增大와 國際收支의 改善, 工業生産力의 擴充 및 社會間接資本의 蓄積, 科學 및 技術振興等 生産性的 提高로 集約될 수 있다. 이러한 分野에 資源配分을 集中시키기 위해 同期間 投融資의 規模는 年度를 거듭함에 따라 그 比重은 增大되었다.

財政支出 패턴의 特徵을 살펴보기 위해서 財政支出의 構成 및 內容을 國民所得計定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表1>은 國民總生産(G.N.P)에 대한 政府의 消費支出, 投資支出 및 經常移轉으로 大別되는 財政支出의 年度別 比率를 收錄한 것이다.

政府支出構成項目的 對GNP比率

<表1>

(單位: %)

年 度	總財政支出	消費支出	一般行政	國防費	投資支出	家計에 대한 移 轉
1970	25.9	10.4	5.6	3.8	4.1	1.6
1971	26.0	10.7	6.9	4.1	4.9	1.7
1972	27.4	10.9	7.1	4.3	4.6	1.7
1973	21.9	9.2	6.7	3.5	4.3	1.3
1974	23.3	10.2	6.7	4.0	4.5	1.0
1975	25.3	10.5	6.3	4.5	5.7	1.8
1976	25.3	11.3	5.4	5.3	5.6	1.8
1977	25.3	11.7	7.1	5.6	6.6	2.1
1978	26.0	11.5	8.4	5.6	8.0	2.2
1979	29.4	11.2	8.0	5.3	7.3	2.5
1980	33.0	13.0	8.6	6.7	7.7	2.6

資料: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82.

崔洸偏, 財政統計資料集(韓國開發研究院, 1983.4)에서 必要한 資料를 발췌 計算하였음.

3)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60-1971에서 必要한 統計를 발췌하였음.

表에서 볼 수 있듯 國民總生産에 대한 總政府支出은 平均 26.4%로 나타나고 있다. 支出構成項目으로 細分하여 본다면 政府消費의 比重은 1970年の 10.4%에서 1980년에는 13.0%로 增加 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資本形成, 經常移轉의 比率은 1970年 4.1%, 1.6%에서 1980년에는 9.3%, 2.7%로 增加되고 있다.

政府消費支出中 一般行政費와 國防費의 構成에 있어 國防費의 比重은 높아지고 있으며 家計에 대한 經常移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政府의 消費의 支出이 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얼마나 되어야 할 것인가는 財政서비스의 水準如何에 달려 있으나 大部分의 경우에는 國民經濟의 發展段階에 依存하는 問題이다. 歷史的으로 볼 때 社會關係서비스의 比重의 增加가 1人當 國民所得의 增加에 의하여 可能하게 될 과 同時에 共同慾望으로써 實現된 것에 의할때⁴⁾ 資本形成의 增大는 成長을 指向하는 過程에 必然性을 가지며 個人에 대한 經常移轉의 伸張率은 보다 더 높아야 될 筈 믿는다. 이러한 現象은 <表2>의 財政支出比率을 先進國과 比較할 때 보다 더 明白해진다.

表에서 볼 수 있듯 GNP에 대한 政府消費支出은 先進國과 比較할 때 아직 낮은 水準에 있다.

<表2> 政府支出構成項目的 對GNP比率의 國際比較(1978)

(單位: %)

	總政府支出	政府消費	國防費	政府投資	家計移轉
美 國	26.3	18.1	9.3	2.8	5.2
카 나 다	28.0	14.5	4.6	6.7	8.6
英 國	27.6	16.6	6.3	7.0	6.5
佛 蘭 西	33.3	13.3	5.6	2.1	13.2
西 獨	30.9	13.6	3.2	3.3	12.6
日 本	22.9	8.8	1.0	8.0	3.6
韓 國 ^{註1)}	33.0	13.0	6.7	7.7	2.6

資料: U.N., Yearbook of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1980, New York.

註1) <表1>의 1980年度

특히 經常移轉의 比率은 低水準에 있는 바 이는 個人에의 移轉 즉 社會保障費에 대한 政府 負擔이 極히 적기 때문이다. 政府投資比率은 先進國 水準을 능가하고 있는 바 이는 開發途上國의 經濟成長을 政府가 主導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할 수 있다.

消費支出, 投資支出, 經常移轉支出이 總政府支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살펴본다면 다음 <表3>

4) U.K.Hicks, British Public Finance, Oxford Univ. Press, London, 1954, p.16.

과 같다.

政府支出項目의 總支出에 대한 構成費

〈表 3〉

(單位: %)

年 度	總政府支出	消費支出	(國防費)	投資支出	(移轉支出)	(家計)
1970	100	56.1	23.2	43.9	8.9	7.1
1971	100	55.5	26.0	44.5	9.7	7.4
1972	100	55.0	25.9	45.0	11.1	8.5
1973	100	54.3	28.0	45.7	14.1	7.9
1974	100	49.3	29.3	50.7	27.8	5.0
1975	100	52.2	28.8	47.8	23.2	7.5
1976	100	55.6	32.9	44.4	18.0	8.1
1977	100	56.2	34.7	43.8	17.9	7.8
1978	100	57.2	37.0	42.8	17.7	7.6
1979	100	52.3	30.8	47.2	20.2	11.5
1980	100	54.6	35.6	45.4	18.8	9.9

앞서의 比較에서와 같이 消費支出의 比重은 56.1%에서 54.6%로 漸減되고 있으며, 投資는 43.9%에서 45.4%로 增大를 보이고 있다. 한편 家計에 대한 經常移轉의 比重은 아직 微微한 實情이나 1980년에는 9.9%에 이르고 있다. 또한 同 期間에 있어서 國民總生産에 대한 總政府支出은 거의 一定한 比重을 나타내고 있으나 支出構成面에서 變化를 보이고 있다. 즉 政府支出 構成의 年度別 推移는 消費支出의 漸減과 資本形成 및 家計에 대한 經常移轉의 漸減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財政支出이 經濟成長을 促進시키며 成長過程을 通하여 豊요한 社會로 接近함에 따라 經常移轉支出의 比重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 經濟成長에 따르는 財政支出構造의 變化로써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經濟成長에 따라 總政府支出의 對GNP比率는 漸增하는 바 즉 政府의 國民經濟에 대한 比重은 높아진다. 長期的으로 볼 때 經濟成長과 함께 消費, 投資, 移轉支出은 그 比重이 一般行政에서 비스에서 經濟서비스, 社會서비스의 推移를 나타낸다 하겠다. 따라서 後進國에서 中進國으로의 開發過程에서는 成長을 위해 資源配分이 消費型에서 投資型으로 옮기고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의 過程에서는 投資型에서 漸次 厚生の인 移轉支出型으로 옮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支出構成에 있어서도 消費支出內容은 一般行政에서 教育, 科學振興費의으로, 投資는 産業投資에서 社會間接資本의 蓄積으로, 移轉支出은 企業으로의 補助金에서 個人으로의 移轉으로 變化된다고 하겠다.

1970年代 우리나라 財政支出構造가 中進國으로의 開發을 可能케 한 要因은 消費支出의 抑制에 따른 投資指向의인 政策에 基因한다 하겠다.

Ⅲ. 政府貯蓄과 政府投資

經濟政策의 目標은 經濟成長, 所得分配, 經濟安定의 3部門의 調和에 있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經濟成長은 高水準의 個人消費, 經濟的 資源의 效率의 配分에 있으며 經濟安定은 高水準의 雇傭, 國際收支의 均衡, 物價의 安定이라고 볼 수 있다.

開發途上國의 經濟政策은 持續의인 經濟成長에 있으며 그 結果 財政이 投資指向의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財政支出에 의한 成長의 促進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制限을 받지만⁵⁾ 支出面에서 볼 때 韓國經濟의 政府投資는 工業化의 加速化, 基幹産業의 擴充과 社會間接資本의 蓄積을 위한 投資로 集約될 수 있다. 資源의 效率의 配分의 面에서 볼 때 政府貯蓄이 成長目的에 投入되는 可能性은 매우 크며 또한 成長을 促進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投資指向의인 政府支出面에서 볼 때 야기되는 問題는 모든 投資가 政府貯蓄에 의하여 可能케 된 것인가에 대한 問題이다.

다음 <表4>는 1970年代 政府貯蓄의 政府經常收入에 대한 比率 및 國民總生産에 대한 比率를 比較 收錄한 表이다.

1970年代 政府貯蓄率推移

<表4>

年 度	經常收入 (10 億원)	經常支出 (10 億원)	貯 蓄 (10 億원)	貯蓄/經常收入 (%)	貯蓄/GNP (%)
1970	503.42	314.10	189.32	37.6	7.0
1971	586.26	401.81	184.45	31.5	5.6
1972	654.29	506.95	147.34	22.5	3.6
1973	778.94	568.67	210.27	27.0	4.0
1974	1,191.48	1,029.83	161.65	13.6	2.2
1975	1,774.57	1,396.98	377.59	21.3	3.8
1976	2,685.77	1,860.01	825.76	30.7	6.2
1977	3,383.07	2,481.67	901.40	26.6	5.3
1978	4,651.82	3,247.77	1,404.05	30.2	6.1
1979	6,140.19	4,142.68	1,997.51	32.5	6.9
1980	7,625.28	5,623.31	2,001.97	26.2	5.8

資料 :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82, pp.208-209.

5) J. Robinson, The Accumulation of Capital,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Illinois, 1956, p.48.

1970年代初 30%를 넘던 政府貯蓄率이 점차 그 比率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1960年代 政府貯蓄의 增加 現象에 비추어 볼 때 1970年代의 財政構造의 하나의 特徵이라 말할 수 있다.

經常剩餘 即 政府貯蓄의 變化는 經常收入과 經常支出의 相對的 關係로 나타나며 經常收入의 伸張이 經常支出을 下廻하고 있기 때문이다.

經常收入의 增大는 租稅負擔率의 增大에 基因되는 바 1970年만 하더라도 租稅負擔率이 14.8% 이던 것이 1980년에는 19.2%⁶⁾에 達하고 있다. 한편 經常支出에 있어서는 政府規模의 擴大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經常剩餘의 絶對額의 增加는 投資를 促進시켰다고 볼 수 있으며 여 기서 租稅增大에 따른 政府投資의 相應·關係를 補充할 수 있다. 이러한 事實은 量的 膨脹 過程에서 야기되는 強制貯蓄에 의한 資本蓄積의 한 形態로 바꾸어 말하면 1970年代 國民經濟上의 하나의 特徵으로써 政府投資의 增大가 租稅에의 依存度를 相對的으로 높이고 成長의 必要性에 따라 租稅機構가 高度成長을 뒷받침하여 준 하나의 例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事實은 政府貯蓄의 國民總生産에 대한 比率에서도 同一한 結果를 얻을 수 있다. 1970년에는 7.0%의 政府貯蓄率이 1980년에는 5.8%로 어느 程度 떨어진 數值를 보이고 있으나 1970年代에 걸쳐 거의 6%에 가까운 比率를 보이고 있다.

다음 <表5>는 政府資本形成의 財政貯蓄에 의한 充足率을 나타낸 表이다.

政府總資本形成의 政府貯蓄에 의한 充足率

<表5>

年 度	貯 蓄 (Sg) (10 億원)	資本形成 (Ig) (10 億원)	Sg/Ig
1970	189.32	164.05	1.154
1971	184.35	194.09	0.950
1972	147.34	215.18	0.685
1973	210.47	221.56	0.950
1974	161.65	312.57	0.517
1975	377.59	479.32	0.778
1976	825.76	630.05	1.311
1977	901.40	862.35	1.045
1978	1,404.05	1,209.36	1.161
1979	1,997.51	1,732.98	1.153
1980	2,001.97	2,449.64	0.817

資料 :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82, p. 180.

6)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82, p. 352.

여기서 政府資本形成은 一般政府가 行하고 있는 社會間接資本 및 基幹産業의 擴充을 包含하고 있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充足率이 "1" 以上일 때에는 一般政府로부터 他 特別計定으로 資金投入이 行하여 졌음을 말하며 充足率이 "1" 보다 적은 경우에는 財政投融資에 의해 補完되었음을 말하여 준다.⁷⁾

1970年代에 있어서 어느 程度 均衡을 維持하고 있으며 "1" 보다 크게 적은 年度는 1972年, 1974年, 1975年으로 앞의 政府投融資의 增大에서 보는 바와 같다.

政府貯蓄率이 國民所得水準과는 無相關關係를 갖고 있으며 同時에 先·後進國間에 큰 隔差가 있다. 先進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社會保障制度가 앞선 國家인 경우 政府貯蓄率이 높으며⁸⁾ 後進國에 있어서는 開發過程에 있어서 政府役割의 重要性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1970年代 政府貯蓄率이 30%에나 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經濟開發計劃과 함께 생각할 때 그 當然性을 지닌다.

Ⅳ. 經濟變動과 財政支出

近代國家에 있어서 財政支出이 國民經濟變動에 큰 影響을 끼치고 있다는 事實은 여러 角度에서 評價된다. 이 節에 있어서는 1970年代 우리나라 財政支出과 國民經濟의 綜合指標인 國民總生産 (GNP) 과의 相對的 比較에 의하여 經濟變動에 따른 財政支出의 變化關係를 살펴 經濟變動에 따라서 어떠한 效果를 낳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表6>은 1970年代 國民總生産의 對 前年度 增加率과 財政支出의 對 前年度 增加率을 比較 收錄한 것이다.

財政支出과 GNP의 相對的 變化

<表6>

年度	(1) $\frac{\Delta \text{GNP}}{\text{GNP}}$ (%)	(2) $\frac{G}{\text{GNP}}$ (%)	(3) $\frac{\Delta G}{G}$ (%)	(4) $\frac{\Delta G}{\Delta \text{GNP}}$ (%)	(5) $\frac{(3)}{(1)}$
1970	24.4 (7.6)	25.9	28.0	22.4	1.147
1971	22.7 (9.4)	26.0	23.3	22.3	1.026
1972	22.3 (5.8)	27.4	19.1	31.4	1.305
1973	30.0 (14.9)	21.9	3.8	-	0.127
1974	40.0 (8.0)	23.3	48.9	22.3	1.222
1975	33.5 (7.1)	25.3	45.2	27.8	1.349
1976	35.5 (15.1)	25.3	35.6	22.1	1.003
1977	28.2 (10.3)	26.0	31.6	21.6	1.120
1978	34.6 (11.6)	26.4	36.9	17.6	1.066
1979	26.8 (6.4)	29.4	41.4	27.8	1.544
1980	18.0 (-6.2)	33.0	28.1	41.5	1.561

註) () 內는 實質經濟成長率

資料: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82에서 計算하였음.

7) E. Lindahl, Studies in the Theory of Money and Capital, George Allen & Urwin, Ltd., London, 1939, p. 379.

8) 江見康一, "經濟安定化と支出構造", 藤野正三郎, 宇田川璋仁編, 經濟成長と財政金融政策, 勁草書房, 東京, 1967, p. 228.

1970年代는 우리나라 經濟가 1960年代에 이어 擴大過程을 밟은 時期이므로 1980年의 마이너스 成長을 例外로 매우 높은 成長을 持續하였다. 이러한 量的 膨脹過程에서 財政支出은 同一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財政規模와 實質成長率과는 有意的인 相關關係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財政支出이 有效需要水準의 上昇을 가져와 成長이 促進됨을 짐작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때 <表6>의 4列은 財政支出의 國民總生産에 대한 限界寄與率으로써 財政支出의 役割을 살피는데 하나의 指標가 된다. 즉 財政支出의 限界寄與率은 1970年, 1972年, 1975年等 比較的 經濟成長率이 낮았던 年度에 比較的 높은 寄與率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財政의 有效需要의 安定化에 寄與하였다고 믿어진다.

第5列은 GNP變動分에 대한 財政支出의 變動分으로써 財政支出의 GNP에 대한 彈力性係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彈力性係數가 "1"보다 높으면 經濟成長 둔화기에 있어서는 需要促進效果를, "1"보다 적을 때에는 好況期에 있어서는 需要抑制效果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財政支出의 GNP에 대한 彈力性係數를 해석할 때 1973年을 例外로 하면 1971年, 1976年, 1978年은 比較的 需要抑制效果를, 다른 年度에 있어서는 需要促進效果를 나타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 彈力性係數가 "1"인 경우에 있어서는 財政이 景氣變化와 同一한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1970年代에 있어서 財政은 需要促進效果를 가져와 經濟의 安定面 보다 是 成長面에 보다 많은 作用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財政支出이 景氣變動의 各 局面에 있어서 安定的 내지 不安定的인 作用을 살펴보기 위하여 財政支出의 內容을 細分하여 財貨와 用役의 經常購入, 資本形成, 經常移轉의 3部門으로 나누어 總 財政支出의 變動에 따라 이 3部門에 어떠한 變化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總政府支出 變動分에 대한 各 支出의 限界寄與率을 收錄한 것이 <表7>이다.

政府總支出 變動分에 대한 政府支出項目의 限界寄與率

<表7>

(單位: %)

年 度	$\frac{\Delta \text{經常購入}}{\Delta \text{總政府支出}}$	$\frac{\Delta \text{資本形成}}{\Delta \text{總政府支出}}$	$\frac{\Delta \text{移轉支出}}{\Delta \text{總政府支出}}$
1970	52.0	39.4	8.6
1971	59.2	30.6	10.2
1972	45.9	46.5	7.6
1973	47.6	43.3	9.1
1974	65.4	25.9	8.7
1975	48.6	50.8	0.6
1976	40.6	57.4	2.0
1977	46.9	47.5	5.6
1978	83.2	11.7	5.1
1979	36.5	36.4	27.1
1980	43.9	41.9	14.2

資料: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82에서 計算하였다.

表에서 볼 수 있듯 相對的으로 가장 變動이 심한 것은 資本形成이며 다음이 政府의 經常移轉이다. 資本形成이 比較的 變動이 심한 것은 그 性格上 他 部門보다 景氣彈力的이며 經常消費나 經常利轉이 資本形成에 比해 安定的인 것은 制度的인 側面으로 支出의 更直性에 基因되기 때문이다.

景氣變動과 投資의 變動이 密接한 因果關係가 있다고⁹⁾ 財政支出의 內容에 있어서 政府의 經常支出比重이 政府投資의 比重으로 移行한다고 할 때 景氣變動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政府의 投資指向의 現象에 대하여 政府 資本形成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다음 <表8>은 政府의 資本形成을 固定資本形成과 在庫品增加로 나누어 固定資本形成에 대하여서는 一般政府和 政府企業으로 나누어 그 構成比를 收錄한 表이다.

政府總資本形成에 대한 固定資本形成 및 在庫增加構成比

(單位: %)

<表8>

年 度	總資本形成	固定資本形成		在庫增加
		一般政府	政府企業	
1970	100	78.5	17.8	3.7
1971	100	77.1	22.9	-
1972	100	71.0	26.9	2.1
1973	100	71.8	20.3	7.9
1974	100	73.4	23.6	3.0
1975	100	70.7	25.2	3.7
1976	100	65.3	30.6	4.1
1977	100	68.6	24.0	7.1
1978	100	67.6	28.3	4.1
1979	100	69.7	25.3	2.0
1980	100	67.2	35.9	- 3.8

資料: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82에서 計算하였음.

表에서 볼 수 있듯 總資本形成에 대해 살펴 본다면 同期間 一般政府의 資本形成은 平均 71.0%, 政府企業은 25.5%, 在庫增加는 3.1%로 1970年代 政府部門의 資本形成의 限界的 增加의 中心은 政府企業投資보다는 一般政府 投資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事實은 同期間에 있어서 政府企業보다는 社會間接投資의 擴充이 보다 큰 比重을 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政府投資와 民間投資를 對比하여 보면 <表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固定資本形成으로나 總資

9) A.H.Hansen, Business Cycles and National Income, W.W.Norton & Co.Inc., 1951, p.80.

本形成으로나 政府部門의 寄與率은 別다른 差異를 보이고 있지 않다. 總資本形成中 政府部門은 平均 20.1%로 나타나고 있다. 年度別로 보아 多少 그 比重이 下落하고 있는 바 이는 長期的으로 보아 經濟成長과 함께 民間投資의 增大過程에서부터 政府投資의 相對比가 下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政府投資와 民間投資의 比較

<表 9>

(單位: 10億원)

年度	固 定 資 本 形 成				總 資 本 形 成			
	民間(1)	政府(2)	計(3)	(2) (3) (%)	民間(4)	政府(5)	計(6)	(5) (6) (%)
1970	490.05	164.05	654.10	25.1	548.82	170.28	719.10	23.7
1971	548.29	194.09	742.38	26.1	637.42	193.98	831.35	23.3
1972	613.32	215.18	828.50	26.0	653.71	219.64	873.80	25.1
1973	1,034.08	221.56	1,255.64	17.6	1,071.30	269.70	1,341.00	20.1
1974	1,557.99	312.57	1,870.56	16.7	1,982.08	292.24	2,274.32	12.8
1975	2,064.63	479.32	2,543.95	18.8	2,250.36	631.44	2,881.80	21.9
1976	2,522.32	630.05	3,152.37	20.0	2,721.03	657.16	3,378.19	19.4
1977	3,558.53	862.35	4,420.88	19.5	3,600.66	1,044.29	4,644.95	22.5
1978	5,813.71	1,209.36	7,023.07	17.2	5,876.53	1,261.21	7,137.74	17.7
1979	7,725.20	1,732.98	9,458.18	18.3	8,469.59	1,823.91	10,293.50	17.7
1980	8,790.39	2,449.64	11,240.03	21.8	8,436.27	2,376.41	10,812.68	22.0

資料: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82에서 計算하였음.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을 主로 하고 있는 政府投資는 景氣變動에 따라 比較的 彈力的이기 때문에 民間投資가 下落하는 成長 둔화기에는 投資活動의 補整的 推移를 보이고 있다.

V. 財政支出의 景氣彈力性

앞 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政府支出의 景氣變動에 대한 安定化 내지 成長結果는 政府支出의 構成項目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政府消費와 移轉支出은 全體의으로 보아 經濟變動에 대해 非彈力的이라고 믿어지나 移轉支出中에서 社會保障 및 特殊福祉事業費等은 彈力的의 이어서 흔히 景氣對策의 必要, 效果의 實現이 될 수 있는 自動的 制度로 알려져 있는 自動的 安定裝置(Built-in Stabilizer)機能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¹⁰⁾ 이러한 政府支出의 自動的 安定裝

10) A.H. Hansen, Monetary & fiscal Policy, McGraw-Hill Book Co. Inc., New York, 1949, p. 182.

置機能을 考慮할 때 아직 우리나라 政府支出中 家計에 대한 經常移轉의 比重은 낮기 때문에 景氣補整의 하나의 作用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한 實情에 있다.

이미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政府投資中 政府企業投資는 彈力的인데 反하여 一般政府投資는 成長過程을 通하여 漸增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政府支出의 經濟效果를 檢討하기 위하여서는 經常支出과 資本支出의 區分만으로는 充分하지는 못하다. 왜냐하면 經常支出과 資本支出中에는 景氣彈力的인 要素와 成長順應的인 要素가 함께 內在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支出政策을 定함에 있어서 이러한 要素를 充分히 檢討할 수 있다면 財政支出을 支辨하고 있는 租稅政策에서 보다 效率的인 作用을 導出할 수 있다. 租稅政策이 經濟成長 내지 安定化 및 所得分配와는 一致하지 않으나 直接稅와 間接稅의 景氣彈力性은 큰 差異를 보이고 있다.

所得稅가 主宗을 이루는 直接稅는 높은 景氣彈力性을 보이는데 比하여 酒稅나 物品稅等の 間接稅는 景氣彈力性이 直接稅보다 相對的으로 낮다. 따라서 租稅의 景氣彈力性에 重點을 두어 景氣變動에 대한 有效한 調整手段으로 利用되어야 할 줄 믿는 바 租稅面의 景氣彈力性은 支出面에서의 經濟效果와 綜合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租稅와 政府消費와의 對 前年增加率의 比較에서 우리는 民間投資와 政府投資와의 關係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民間投資는 景氣變動을 直接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財政支出의 租稅政策을 보다 有效히 利用함으로써 經濟成長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VI. 結 論

1970年代 우리나라 財政支出이 經濟成長에 어느 程度 그 效果를 미쳤는가를 國民所得計定으로부터 概略的으로 考察하였다. 財政支出을 經濟成長 目標 達成을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 利用될 때 財政支出은 自然 經常消費支出보다는 投資支出을 中心으로 한 投資支出指向的인 樣相을 나타내며 混合經濟體制下에서 民間部門과 함께 그 有用性은 크다 하겠다. 즉 後進國의 경우 財政의 役割은 政府貯蓄을 增大시킴으로써 基幹産業의 育成, 社會間接資本의 蓄積 및 租稅政策을 통한 貯蓄·投資의 誘導等으로 國民經濟에 큰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 財政支出이 1950年代의 消費支出中心으로부터 漸次 投資支出의 增大를 가져와 財政支出이 國民總生産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1980년에는 30%에 達하여 經常消費支出 18%, 投資支出 9%, 經常移轉支出 3%로 나타나 投資支出 指向的인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投資支出을 可能케 한 要因은 經濟成長과 함께 經常收入에 의한 政府貯蓄率의 增大에 있다. 즉 30%에 이르는 經常支出을 超過하는 經常收入의 增大는 租稅政策을 통한 一種의 強制貯蓄의 形態로 생각된다.

長期的으로 財政支出을 經常消費支出, 投資支出, 經常移轉으로 나누어 볼 때 그 支出比重은 一

般行政서비스에서 經濟서비스, 經濟서비스에서 社會서비스로의 推移를 나타내고 있는 바 現在 우리나라 財政支出 패턴은 中進國型으로서 經濟서비스에 그 重點을 두고 있다.

同期間中 國民總生産에 대한 財政支出의 限界寄與率로 살펴본 財政支出의 特性은 比較的 成長이 둔화되었던 1970年, 1972年, 1965年度에는 높은 寄與率을 보임으로써 1970年代 經濟成長을 主導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財政支出의 國民總生産에 대한 彈力性係數面에서 보았을 때 比較的 不況期였던 1970年, 1975年, 1978년에 높은 彈力性係數를 보여 주므로써 需要促進效果를 보였다.

資本形成面에서 볼 때에는 政府企業部門보다는 一般政府의 資本形成이 높아 이는 어느 程度 景氣變動에 대한 補整的 役割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財政支出이 經濟成長에 미치는 影響을 充分히 把握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經濟指標와의 比較 및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一般會計와 特別會計와의 區分이 必要하나 이點 充分히 考慮 못한 點을 밝혀 둔다.

參 考 文 獻

- A.H. Hansen, Monetary and Fiscal Policy, McGraw-Hill Book Co., Inc., New York, 1949.
 A.H. Hansen, Business Cycles and National Income, W.W. Norton & Co., Inc., 1951.
 U.K. Hicks, British Public Finance, Oxford Univ. Press, London, 1954.
 A.P. Lerner, Economics of Employment, McGraw-Hill Book Co., Inc., New York, 1951.
 E. Lindahl, Studies in the Theory of Money and Capital,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39.

宇田川璋編, 經濟成長と財政金融政策, 勁草書房, 東京, 1967.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1982.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81.

崔洸編, 財政統計資料集 (韓國開發研究院 1983.4)

崔洸編, 國家豫算과 政策目標 1983 (韓國開發研究院, 研究報告 83-07)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韓國經濟의 構造變化에 관한 研究 (1982.11)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2.

